

의 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한다.

⑦ 학문연구 영역의 폭을 넓히고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국학, 동양학분야 전공자가 서양어를, 서양학분야 전공자가 한문, 중국어를 선택하였을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한다.

## 〈討 論〉

### 양철학(자연대 화학과)

- 석·박사 과정이 통합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외국어고사 합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의미
- 합격선은 40점으로 유지해야 하며, 입학사정시 총점기준으로의 전환에는 반대
- 영어시험 개선안
  - ① 시행 : 석·박사과정 입학시험(2회)
  - ② 내용 : 기초공통부문과 전공부문으로 구분하되, 필기시험과 함께 청취시험도 시행
- 제 2 외국어(자연계열의 경우) 개선안
  - ① 시행 : 박사과정 입학시험
  - ② 과목 : 제 2 외국어군에 프로그래밍언어 포함
  - ③ 대체방안 : 석사과정 재학시 대체과목을 신청하여, B 학점 이상이면 박사과정 입학시험시 제 2 외국어 시험 면제
- 관계 법령의 개선으로 자격고사 폐지도 고려
-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군의 확대
- 가치 “대학원 연구능력 적성고사” 개발 시행에 찬성(단, 수학도 포함)

### 윤계섭(경영대 경영학과)

#### —문제점

- 현행제도 운영상의 획일성
-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군의 제한
- 행정편의에 치중

#### —개선안

- 입학시험 과락기준 상향조정과 자격시험 면제
- 기초공통부문과 전공부문의 구성비는 80 : 20에서 50 : 50으로 조정(전공부문의 경우, 전공용어상의 문제점 고려)
- 외국어군에 프로그래밍언어 포함
- 어학과 함께 수학 및 통계학도 시험과목에 포함

- 외국인 학생의 경우, 한국어를 제 1 외국어로, 모국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중 하나를 제 2 외국어로 인정

#### 이장무(공대 기계설계학과)

##### —문제점

- 외국어고사의 중복시행으로 본연의 연구수행에 부담
- 현행제도 운영상의 융통성 결여
- 기초공통부문과 전문직업부문간의 구성비율 불균형

##### —개선안

- 고사제도 간소화
  - ① 석사입학시험시 일정수준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사입학시험 면제
  - ② 탈락자의 경우, 어학연구소로 하여금 technical writing이나 독해를 위주로 한 시험을 연중 일정횟수 시행토록 하여, 이에 응하거나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
  - ③ 교육법 시행령 검토와 수정건의
- 시대적으로 정보교환가치가 높은 언어를 택할 수 있도록 각 계열 혹은 단과대학에 운영권 부여
- 기본공통부문은 대학의 외국어교육단계에서 담당해야 할 부문이므로, 대학원에서의 외국어고사는 전문직업부문에 치중해야 함

#### 서우석(음악대학 작곡과)

##### —음·미대 외국어 수강 현황

- 개강된 모든 외국어 중 택 1(3학점×4학기)
- 영어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도와 피리

##### —외국인 학생의 경우

- 외국어 시험으로 인해 입학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
- 출신국 언어를 영어 대체과목으로 인정하도록 건의

##### —대학 및 학과의 특성 고려 시급

- 동양화과와 국악과의 경우, 한문 및 중국어를 제 1 외국어로 지정하고 제 2 외국어는 기타 언어군에서 택 1
- 기타과에 대해서는, 제1/2외국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 외국어군에서 택 2

#### <自由討論>

#### 박영한(사회대 지리학과)